

김치 같은 그리스도인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집안 가득 배추와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의 향이 퍼진다. 김치를 담그는 손길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배추 한 포기, 양념 한 스푼에도 마음과 정성이 깃들어 있다. 각각의 재료는 저마다 강한 맛과 향을 지녔지만, 혼자서는 온전한 맛을 낼 수 없다. 배추만으로는 밋밋하고, 고춧가루만으로는 맵고 쓰고 짜기만 하다. 서로 다른 재료들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깊고 풍성한 맛이 완성된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가르치는 공동체와 닮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과 성품은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섞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배추와 양념이 서로의 맛을 살리듯, 사람도 서로를 살리고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추수감사주일은 이 조화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일깨운다. 한 해 동안 땅이 거둔 열매, 서로의 존재,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삶의 순간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날이다. 김치를 담그며 우리는 자연이 준 배추와 양념,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손길에 감사한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살리고 어우르는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임을 깨닫는다.

김치는 시간이 지나야 제 맛을 낸다. 사람 사이의 사랑과 배려도 그렇다. 지금은 어수선하고 익숙지 않아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기다리며 사랑을 더할 때, 공동체는 점점 더 깊은 맛과 향을 발한다. 감사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자라난다. 작은 배려와 섬김이 모여, 결국 하나의 풍성한 맛과 감사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찬 겨울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버무리는 손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화와 상생, 그리고 감사의 삶을 맛보게 된다. 추수감사주일, 김치를 담그며, 우리는 오늘도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오늘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음식나눔 행사로 '김장'을 함께 합니다. 예배 후 공동식사 때 해풍 맞은 해남 절임배추와 목포 양념을 버무리며 함께 나누시다. 윤희정 집사가 헌물한 육개장에 김용민 목사가 헌물한 해남 고구마로 행복한 추수감사주일 만들어요.

2025년 11월 16일
통권 13권 46호
창조절 11주일 · 추수감사주일

2025년 뱅커1교회 표어
κόσμος 코스모스
세상 질서 조화(요한 3:16)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뱅커1교회 주제성구 아모스 5:24

섬기는 사람들

목사 김용민 · 장로 민에스더
전도사 오광석 최새론 이용수


교회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화랑로546번길 16-12)

010-9341-2012

bunker1churchweb@gmail.com

bunker1.me

 **누룩TV**

뱅커1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소속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애쓰고 있는 개혁적 개신교회입니다.

창립기념일 2012년 6월 10일



새 교우 등록을 원하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34

주일에배순서

찬양

인도 영광성 전도사
 보컬 이난주 집사·김자경 교우·이혜정 집사·이진영 집사·김성윤 집사·김경순 집사
 연주 정진호 집사·박이정 교우·이용수 전도사·장옥상 집사·이종원 집사

사회 이경현 집사

신앙고백 Creed	병κε교회 신앙고백	다함께
찬송 Hymn	감사찬송(복음성가)	다함께
기도 Prayer		양미혜 집사
독서 Bible reading	시편 136:11~16	사회자
설교 Sermon	감사하여라	김용민 목사
광고 News		사회자
파송곡 Closing Song	교회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김용민 목사

■ 병κε교회 신앙고백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므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 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 성경 시편 136편

11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2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3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 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6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 찬양 배경

구세군 사관 스톨은 1899년에 심각한 척추 부상을 입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평생 동안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함께 있었음을 깊이 묵상하며 이 가사를 썼습니다.

■ 찬송 감사 찬송



1. 날 구원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 성 감사
 2. 응답 하신 기도 감사 거절 하신 것 감사
 3. 길 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헤쳐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항기론 불철에 감사 외로가 울 날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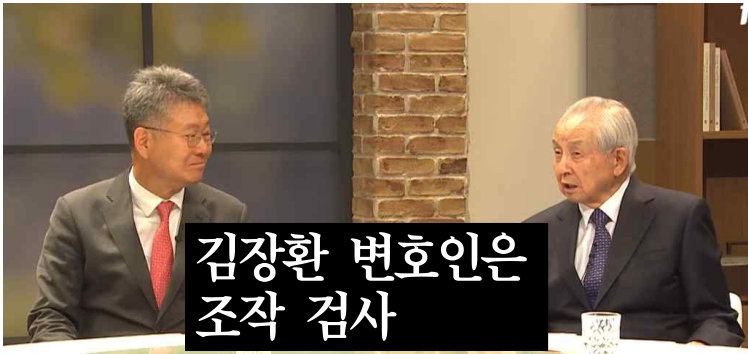
사랑 건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해
 축량 못 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해
 내일 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해

■ 오늘 설교 요약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감정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여는 신앙의 능력이다. 우리의 역사와 삶 속 고난, 상실, 질병,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하

나님은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지키며 새로운 활로를 여신다. 심리학 연구 또한 고난 중 감사가 회복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을 높여 고통을 소화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긍정이 아

니라,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로 고난을 뚫고, 감사로 어둠을 깨뜨리고, 감사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김장환 변호인은 조작 검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멍 로비 사건과 관련해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등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희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수사를 총괄했던 검사였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으며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로 뒤집혔음에도 김 전 의원이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는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장로이다. 조작 사건의 가해 검사가 교회 장로이자, 유력 개신교회 인사의 변호인인 것이다.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 황전면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백점선 씨와 그의 딸은 청산가리를 섞은 막걸리를 주민들에게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자 중에는 백 씨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당시 아버지와 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2012년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김희재 전 의원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하고 결과 발표를 담당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자백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으며, 그 자백마저 강압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광주고등법원의 재심에서 지난달 28일 백 씨 부녀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자백이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검찰 역시 상고를 포기해 사건 발생 16년 만에 두 사람은 누명을 벗었다. 대검찰청은 "객관적 증거 없이 자백을 유도하고, 진술거부권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사유 없이 결박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지적을 받아들여 공식 사과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지금까지 사죄 한번 없는 당시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검찰 사무 감독관으로서, 16년간 상상도 못 할 고통을 겪어온 두 분에게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상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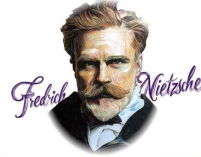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김희재 전 의원이 최근 전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김 전 의원에 이어 여수를 지역구 현직 의원인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도지사 출마를 논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유튜브 '김용민TV'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김 전 의원이 항소로 끌고 가 부녀가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 결과 15년간 삶이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재심 무죄 이후 김 전 의원이 "판단은 존중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조 의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못을 박는 행위"라고 맞섰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의원은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 구멍 로비 사건에서도 김장환 이사장과 한기봉 전 사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특검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식 과잉 불법 표적 수사"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과거 자신의 수사 행태야 말로 '짜맞추기식 과잉 불법 표적 수사'가 아니었나"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백 씨 부녀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목사와 책읽기 니체 '우상의 황혼'

우상의 황혼




“신은 죽었다”로 알려진 니체의 ‘우상의 황혼’(Twilight of the Idols)은 서구 문명을 지탱해온 도덕·철학·종교적 ‘우상’들을 통렬하게 해체하는 선언문에 가깝다. 그는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온 가치와 규범들을 문제 삼으며, 그것들이 인간의 본능과 생명력을 억압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고 지적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우상 타파가 사실 구약성서의 오래된 가르침이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니체는 구약이 반대 한 우상만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우상 체계로 본다. 무슨 뜻일까? 구약성서가 말하는 우상은 주로 돌·나무·금속으로 만든 신상, 혹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과 그에 얽힌 종교 체계를 의미한다. 본질은 “참 하나님인 아닌 것에 절하고, 그로부터 구원과 안전을 기대하는 태도”에 대한 파괴이다. 즉 인간이 스스로 만든 허상을 신격화하고, 그것에 의존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연약을 훼손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이 구약적 우상 개념을 조소한다. 그의 눈에, 기독교는 저 너머의 세계—예컨대 천국—를 이 땅의 현실보다 더 참된 것으로 만드는 사유 체계다. 그 결과 인간의 몸, 욕망, 힘, 창조성을 열등하거나 죄악시하며, 현실을 경시하도록 만든다. 니체는 이러한 사유 방식 전체를 ‘우상’이라 규정한다. 그는 천국을 통한 구원이라는 약속이 지상에서의 삶을 억압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때, 그 역시 폭로되고 깨뜨려야 할 우상이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이런 우상들이 인간의 생명 긍정의 의지를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우상 타파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모든 절대화를 의심하고 삶 자체를 긍정하는 새로운 가치 창조의 시도이다. 이 점에서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미친 가지로 우리의 당연함을 뒤흔들고, 숨겨진 구조를 폭로하는 비판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도 있다. 구약에서 ‘참’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 곧 언약의 하나님이지만 니체는 어떤 절대 기준도 인정하지 않는 비신학적·탈종교적 입장을 취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우상을 깨뜨린다”는 명분 아래, 내가 불특고 있는 신학·교회 문화·도덕 체계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내 불인과 통제 욕구를 정당화하는 우상으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또한 니체처럼 신앙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극단도 아니며,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신앙 안에서 우상을 분별하고 갱신하는 길이 가능한지를 질문해야 한다. 결국 니체도, 구약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네가 진짜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니체의 비판은 기독교를 단순히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긍정하고 인간을 온전히 세우는 방향으로 신앙을 새롭게 하라는 도전으로 들릴 수 있다.

주일학교 오전 11시 

벙커업 (어린이) 1층 우리지금만나룸 열왕기하 22:1~13 오시아왕의 종교개혁 오광석 전도사	벙커틴 (청소년) 메디피아공간대어 느헤미야서 4:16~23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 최새론 전도사
--	---

수요일예배 수 오후 7시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본문	욥기 23장
설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김용민 목사

새벽성서읽기 월~금 오전 5시 

월	출애굽기 9장 '축종박'의 재앙
화	출애굽기 10장 '매암'의 재앙
수	사무엘상 10:1~12 제목: 비천한 이들의 친구
목	마태복음 5:43~48 원수 사랑, 과연 가능한가
금	마태복음 6:1~4 무주상보

(월·화) 김용민 목사 (수) 최새론 전도사
(목·금) 오광석 전도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일문

주일 박민호 PD · 수요일 김시헌 PD ·
새벽성서읽기 박종욱 집사

벙커1교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방법

지하철 3호선 삼송역 ③번 출구

→ 도보 1.9km

마을버스 삼송역 ③번

→ 075A탑승 (DMC역 방향)

용현마을사거리 하차

시내버스 1·4호선 서울역③번

3호선·GTX A 연신내③번

→ 703탑승 (탄현역 방향)

→ 동산고등학교 하차



김용민 TV
'뭐...?'
17회 11월 13일(목) 1:00 **LIVE**
**석열아~ 건희아~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해**

삶과 죽음은 공존합니다. 혹시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죽음을 생각해야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사유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 나눕니다.

벙커1교회 계좌

헌금 신한은행 100-033-864027

특수목적 신한은행 100-035-696724

교회소식

주일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새 신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상훈 A(시주)님과 정성원(우미)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제직회 후 소박한 김장에 보쌈과 육개장(윤혜정 집사 헌물), 해남 고구마를 곁들인 음식나눔(공동식사)을 합니다.

오늘 제직회 예배 후 제직회를 엽니다. 안건은 '카라반 구입 관련 의결' 및 '추수감사주일 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건입니다. 이미 카라반 구입과 관련해 제직회 결의를 했으나 상회(공동의회) 결의가 교회 정관에 부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 번 더 회의를 열고자 하오니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제직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30일로 공동의회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카라반 입고 지연 이에 따라 교회학교를 위한 카라반이 등록 절차 이후 입고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참회 기도회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매해 추수감사주간마다 미국 청교도에 의해 학살당한 아메리카 원주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7일(목) 오후 3시 교양예배당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뜻있는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양미혜 장로 임직식 양미혜(미슈까) 장로 임직식이 23일(주일) 오후 4시 한신대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모든 교우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말 일정

- 12.5~6 새해 운영위원회의 (강원 양양)
- 12.7 성탄절 연합성가대 연습(상계동 열림교회)
- 12.24 수요일예배 겸 성탄절 전야 모임
- 12.25 (오전 예배 없음) 오후 연합성가대 칸타타
- 12.31 새해 축복 기도 및 송구영신예배 (수요일예배 없음)

 **신한은행** 100-033-864027 **벙커1교회**

11월 교회 십일조 인권연대	11월 안내 2여교우회	지난주 헌금액 2,760,004원
--------------------	-----------------	-----------------------